

16/08/07(주) 주일예배 / 제목 : 에베소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계 2:1~7) p. 400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말엽에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붙잡혀 기름 가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이에 당황한 황제가 밧모 섬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거기서 기도 중에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2장~3장을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에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는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들인데, 그들을 표본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론 / 에베소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에베소' 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에베소 교회의 실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알아야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아시아에서 첫째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정치, 교통, 무역,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방에서 여행자들이 모여들고 상품이 들어오는 부유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딸로서 풍요와 섹스의 여신인데 놀라운 것은 그 곳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이 고대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만큼 웅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로서 황제 클라디우스와 도미티안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극도로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몰든 타락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가 우범지대 안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 관하여는 사도행전 18장 이하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 때 설립한 교회로 3년 동안 전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아볼로와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편지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적어도 40년이 훨씬 지난 때에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밧모섬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1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하고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영적 지도자들을, 그리고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자신의 교회를 두루 살피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2절, 3절, 6절)

2, 3, 6절을 보십시오. **(2,3,6절)**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 에베소는 향락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어서 아데미 신전과 황제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교회는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은 네 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셋째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사실을 밝혀낸 것과, 넷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중에서 첫 번째 칭찬인 수고한다는 말의 헬리어 뜻은 힘을 남김없이 다 쏟는 것을 말하고 비지땀을 흘리면 서 피곤하도록 전심 전력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란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참아냈다는 것을 말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를 많이 하고 환난과 역경을 잘 인내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 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말을 아시고 믿음을 아십니다. 얼마나 잘 믿는지 아니면 형 식적으로 믿는지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 회의 많은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초기 교회시대에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대표적 이단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가 유대주의였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 는다고 주장한 이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인데 이 사상은 이원론적으로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극단적인 쾌락주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는데 이들도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니골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 니다. 그러나 그는 올바른 신앙에서 타락하여 죄를 범하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때는 지났으므 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하므로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던 관계가 없다고 했습 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던지 해 받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에베소 교회 성 도들은 이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과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말 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떠한 유혹과 죄악에도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신천지 신자들이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하여 수년 간 잠복하고 있 다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교회를 신천지화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비상 이 걸렸습니다. 신천지에 대하여 홍보하고, 현관에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을 써 붙이고, 교육을 시키고 경계 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습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합니다.

3.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4절)

2절과 3절의 칭찬에 이어서 곧바로 책망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점이 많았는데 책망할 것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미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책망해 준다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책망할 일이 있는데도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두면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누가 나를 책망하면 그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준다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첫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낸 것은 가상하지만, 정작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상실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또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처음 결심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구역장이 되면,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먹은 자세가 있는데 그 결심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어떤 자세로 헌신하고 어떤 자세로 사랑하겠노라고 했는데 물거품 같이 그 열심이 사라졌다는 꾸지람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의 교회 봉사는 감사의 열매이고 감격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남의 눈치 보아서,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라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며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책망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교회가 본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전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 책망 받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5절)

앞 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권면하기를 영적인 질병을 고칠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5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5절상)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1) 생각하라 - “생각하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기억하라(remember)”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무슨 일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잘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에 대한 망각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인을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집니다. 에베소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2) 회개하라 - 회개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이 식어진 것을 깨달았으면 즉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뒤로 미룹니다. 사단의 전략은 항상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을 느끼는 순간에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3) 처음 행위를 가지라 -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같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교회는 힘 있게 부흥했습니다. (행19: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전은 예전처럼 이러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처음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고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절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경고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 문을 닫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후 에베소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정말 크게 번성했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터가 폐허가 된 채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제 터키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터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융성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웅장한 교회당이 관광지로 전략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어떤 곳은 술집으로 팔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슬림이 갈수록 유럽을 뒤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유럽 재복음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선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했지만, 근자에 들어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시간마다 아멘으로 넘칠 것입니다.

5. 회복하는데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기에 이제 호소하는 심정으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축복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아십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간직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간직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외침 앞에 끊임없이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첫사랑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처음 사랑 속에 친교, 봉사, 헌신과 용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끊어질 때 지치고 힘들고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요약정리 / 에베소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2절, 3절, 6절)
3.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4절)
4. 주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습니다. (5절)
5. 회복하는데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